

한, 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

우 남 식 가 영 희[†]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본 연구는 한·미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의 실태와 관계를 알아보고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지식 수준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성태도는 한국 대학생들이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행동은 미국 대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한국 대학생들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 중 성의식, 결혼과 출산, 성충동,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성행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반면에 미국 대학생들은 성태도 중 성충동,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거나 순결의식이 낮게 나타났고, 성행동 중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미국 대학생들은 성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순결의식이 낮았고, 동성애, 성충동,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 대학생들은 피임에 대한 태도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넷째, 한국 대학생들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충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고, 미국 대학생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태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 모두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에서 한, 미 대학생들 모두 낙태금지외 순결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성애, 피임 및 성충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미 대학생들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동성애, 피임 및 낙태를 많이 하고 성충동이 높으며 순결의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전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은 성태도, 성충동 및 성행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주요어 :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건강

† 교신저자 : 가영희, 인하대학교 교육학과, (402-751) 인천시 남구 용현동 253
E-mail : k-yh-@hanmail.net

인간의 성에 대한 문제는 어느 시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어린이에서 시작하여 어른에 이르기까지 생의 전 과정을 통해 다루어져야 한다(김영희, 1992). 대학생들은 신체적으로 성장이 완료되는 시기이나, 아직도 학업에 전념해야 하며, 갈수록 고도화되는 산업화와 정보화로 인한 교육기간 연장 및 결혼 연령이 늦어져 사회적·심리적·경제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라고 볼 수 없다. 한국의 경우, 대학생들은 고교시절의 입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갑작스럽게 자유와 재량의 범위가 커지고 이성교제가 자유로워지거나 성적충동을 적절히 수용하고 판단할 성에 관한 가치체계가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여서, 당사자들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선택에 기초한 준비된 성행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상태에 놓여있다고 연속, 2001). 그러나 최근 도시화, 산업화, 과학화로 인한 한국 사회의 급격한 변동은 가부장적 가족제도에 의해 좌지우지되었던 전통적 성규범을 해체시키고 있으며,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성의 개방과 성 정보의 홍수 속에 성에 대한 의식과 태도가 크게 변하고 있다(남명희, 1999). 따라서 성지식의 정보는 사회적·정서적·도덕적으로 보다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얻어져야 하는데, 성인잡지, 컴퓨터, VTR, TV 등과 같은 대중매체에 의해 전달되는 자극적이고 흥미위주의 성적정보 속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올바른 성의식이나 성태도가 형성되기도 전에 성에 대한 호기심만 높아져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배성미, 2002).

성에 관한 정보와 지식은 청소년들의 일차 관심사로 미국청소년협회의 보고에 의하면, 성지식을 통해 자연스럽게 충족시킨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을 통해 만족을 얻으려는 욕구를

덜 갖게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한 청소년들은 실제 경험에 의존하게 되는 경향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손호은, 1991). 또한 대중매체가 급속도로 발달하면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지식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무분별하게 쏟아져 나오는 성 정보는 정확한 지식을 갖게 하는데 큰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이영희, 송미숙, 1997). 더욱이 문제는 청소년들이 성지식을 얻는 경로이다. 미국의 청소년들은 주로 부모나 친구로부터 성지식을 얻는데(Thornburg, 1982) 비해 한국의 청소년들은 부모님이나 학교보다는 각종 대중매체와 또래집단으로, 특히 인터넷과 CD롬 등을 통해 성정보를 얻고 있다. 이로 인해 정확한 성지식을 갖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다(강훈백, 2001; 이영희 외, 1997). 이러한 부정확하고 왜곡된 성지식으로 건전한 성태도와 성행동을 취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심희정, 1999), 불확실한 성지식 때문에 자아를 상실하고 성적 부적응자가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김현경 외, 1999).

한국의 남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남명희(1999)의 연구에서는 성지식 점수가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성생리에 관한 지식이 가장 높고 피임에 관한 지식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성지식 수준이 대체로 높다고 밝힌 연구들(이영희 외, 1997; 성영자, 1979, 전경숙 등, 2004)이 있었으나 대학생들의 성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된 연구들(이인숙, 1994; 이인숙 외, 2000; 김경신, 2001)도 있다. 또한 배성미(2002)의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성태도의 수준이 보통으로 나타났고, 전체적으로 성에 대한 의식은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는 성에 대한 전반적 태도는 긍정

적, 개방적으로 나타났고, 대학생의 성에 대한 태도가 매우 긍정적이라고 보고한 연구들(김은자, 1979; 성영자, 1984, 박희두, 1997)도 있다. 그리고 선행연구들에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경험율이 높았다는 연구들이 있다(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정민자 외, 1995). 연령별, 학년별, 성별로 성행동에서 차이를 보였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년이 높을수록 성교 경험률이 높아졌고, 남성이 여성보다 혼전성교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며, 성교 경험률도 높게 나타났다(김중성, 1999; 문인옥, 1998; 위현미, 1998; 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정민자 등, 1995). 그리고 자신의 순결에 대해서는 개방적이면서 타인의 순결에 대해서는 보수적인 이중적인 성태도를 나타내고 있었다(김영희, 1992).

배성미(2002)의 한국 청소년들에 대한 연구에서 성충동은 전체적으로 44.4%의 학생이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69.7%)이 여학생(21.3%)보다 더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동 경험에 대해 자위행위의 경험은 28%로 남학생(54.8%)이 여학생(3.35%)보다 높았으며, 성교의 경험은 6.8%로 남학생(9.2%)이 여학생(4.5%)보다 높게 나타나서 남학생이 성충동이나 성행동에 대해 더 허용적인 것을 볼 수 있다. 한국의 선행연구들에서 자위행위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힌 연구들(이인숙, 1994; 장선화, 1998; 조순희, 2001)이 있으며,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더 많이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영희, 1992; 김태균, 1998; 박성정, 1997; 위현미, 1998; 임민택, 1997). 자위행위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해로운 행동이 아니라 남녀 모두에게 성적인 긴장을 방출시키는 하나의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표현이라고 강조하더라도 아직도 청소년들 모두가 건전하지 못한

행동으로 보고 있으며 20-30%의 청소년들은 죄의식을 느끼며 이로 인해 고민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화를 통한 음란 전화, 음란비디오, 컴퓨터 성교가 자위행위와 함께 이루어지고 있으며 그 빈도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장선화, 1997). 킨제이(Kinsey, 1948)보고서에 따르면 20세까지의 남자의 약 92%와 여자의 약 30% 이상이 자위행위를 경험했다고 한다. 자위행위는 심리적으로나 생리적으로 나쁜 영향이 있을 우려는 없으며, 단지 죄의식, 혐오감, 자기비하가 생긴다고 하였다(이춘재 등, 1993). 동성애에 대해서는 한국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6.9%가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4.6%)보다 여학생(9.1%)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정효, 2000), 미국에서는 십대들 중 남자(11%)가 여자(6%)보다 동성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Hyde, 1990).

미국 청소년의 성태도·성행동 및 피임에 관한 조사연구(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20001)의 결과를 보면 1995에는 결혼하지 않은 청소년의 50%(17,500,000명)가 한번 이상의 성행동이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청소년들의 성행동의 추세를 보면 남자는 1979년보다 1988년이 증가하였으나 1988년 76%를 기점으로 1995년에는 68%로 감소하였다. 여자의 경우는 1988년 51%에서 1995년 49%로 조금 감소하였으나 1971년부터 계속하여 증가하던 것을 감안하여 비교해 볼 때 1988년을 기점으로 감소추세로 돌아섰다. 전체적으로 청소년의 성행동은 56%(1988)에서 52%(1995) 감소하였다. 나이별로 보면 연령층이 15-17세의 경우는 44%에서 41%로, 18-19세의 경우에는 75%에서 72%로 감소했다.

서울대 사회학과에서 92년에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급격하게 성에 대한 의식이 변하고

있음을 나타냈다. 여학생의 성 경험은 92년 0.4%에서 99년에는 15.1%로 증가하였고, 남학생의 경우에는 성교 상대가 92년에는 윤락녀가 46.3%, 애인은 40.4%였던 것이 99년에는 애인이 70.4%, 윤락녀는 18.3%로 나타나고 있다. 혼전 순결을 지켜야 한다는 것에는 23%에서 오히려 14.4%로 감소했다. 이상에서 볼 때 미국에서 성행동이 점점 감소 현상으로 나타나는 반면에 한국의 청소년은 증가하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

김홍신(2002)의 미혼모 관련 국정보고서에 의하면 미혼모의 10대 비율은 52.7%, 20-24세가 33.7%로 청소년 및 대학생 연령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낙태반대운동연합(2003)에 의하면 임신 여성 6명 중 1명은 유산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서 '결혼 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라는 문항에 43.4%가 '결혼 후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에도 33.8%보다 높게 찬성하여 결혼 전 낙태에 대한 허용이 결혼 후 낙태에 대한 허용에 비해 개방적으로 나타났다.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김혜원(2003)의 연구에서는 남녀 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연구한 결과, 남학생의 경우 성지식은 성개방성이 성평등성,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정적인 관계를 보였다. 즉, 남학생들이 성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가질수록 남녀평등적인 성태도를 갖고, 반면에 여학생은 성지식과 성평등성 간에만 유의미한 부적관계가 나타나, 성지식을 많이 갖고 있을수록 성에 대해서는 남녀 불평등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상관관계는 낮은 상관관계로 나타났는데, 즉,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성지식과 성행동간의 관계에서는 성관련 매체에 접촉한 경험이 있는 학생이 없는 학생에 비해 전반적으로 성지식 점수가 높게 나타났으며, 성행동과 성태도의 관계는 성 관련 매체에 접촉경험이 있는 학생이 성 관련 매체에 접촉경험이 없는 학생보다 개방적인 성태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Whitbeck 등(1999)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행동은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일찍부터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다고 하였다.

청소년들의 성문제들은 대부분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정확한 성지식을 가지고 있을 때 해결될 수 있으며(이은영, 1997), 올바른 성지식을 가질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볼 때, 성지식이 성태도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해준다.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실태가 주로 연구되었고, 연구대상도 초·중등 학생위주로 연구되어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적으며(박미숙, 2001; 박선영, 2002; 배성미, 2002;), 미국 대학생들과의 비교연구는 없다. 대학생들에 대한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의 실태뿐만 아니라 상호관계에 대해 체계적으로 연구하고 미국 대학생들과 비교하여 연구하는 것이 의미있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의 실태를 비교하고,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

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봄으로서 한국 대학생들을 위한 성교육 방향제시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예비조사

본 조사에 앞서 한·미 대학생(대학원생)의 성지식, 성태도, 성교육, 성행동에 관한 비교 연구에 대한 타당성과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하여 2004년 11월초부터 11월말까지 한국에서는 수도권에 소재한 4년제 대학생(대학원생), 미국에서는 동일한 기간에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과 The Ohio State University at Columbus에서 대학생(대학원생)을 각기 55명, 총 1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는 연구자가 대학교 교수에게 의뢰하여 대상자를 표집하였고, 미국에서는 거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각 대학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미국의 문화상품권(10\$) 및 레스토랑 티켓(7\$)을 선물로 주면서 신뢰할 수 있는 표집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공히 설문지를 각각 개인 봉투에 밀봉하여 주고받는 등 최대한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성실한 답변을 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 중에 불성실하게 답변한 한국의 3부와 미국의 5부를 제외한 한국의 52명과 미국의 50명, 도합 102부를 분석하였다. 회수된 설문지는 최종 검사문항 개발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요인 타당도 등의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

는데, 성태도 부분에서 정의식의 10, 13번 문항, 동성애의 1, 5, 9번 문항, 성매매에서의 3번 문항, 성충동에서의 12번 문항, 피임에서의 6번 문항, 성행동 부분에서 14번 문항, 부모님의 성에 대한 인식 부분에서 2, 11번 문항은 신뢰도가 낮고 문항의 의미가 불분명하여 삭제하였다.

본 조사

본 연구의 대상은 한국에서는 대전과 충북의 C대학, 전북과 전남의 J대학, 경북의 K대학, 부산의 P대학, 수도권의 S대학, K대학, A대학, I대학의 대학생들(대학원생)에게 각각 30부씩(총 300명), 미국은 미국전역(동부, 중부, 서부)에 위치한 대학들 중 University of Wisconsin, Madison.,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Central Washington University at Washington.,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The University of Texas at Dallas., Ohio State University at Ohio, University of Maryland at Maryland의 미국 대학생들(대학원생) 300명으로 한국과 미국 대학생 총 600명을(한국에서는 2004년 12월부터 2005년 1월 중순까지, 미국은 2004년 12초부터 2005년 2월 초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한국에서는 300부를 배부하여 275부가 회수되었고, 그 중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잘못 기입된 65부를 제외한 210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그리고 미국에서 300부를 배부하여 240부가 회수되었는데, 연령이 많은 대학원생들과 불성실하게 응답하거나 잘못 기입된 52부를 제외한 188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따라서 한국과 미국 대학생 총 398명의 설문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조사 방법은 한국에서는 본연구자가 각 대학교를 방문하여 그 대학의 교수나 강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미국에서는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각 대학 교수들의 협조를 받아 미국의 문화상품권(10\$) 및 레스토랑 티켓(7\$)을 선물로 제공하며 신뢰할 수 있는 표집을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설문지 전달방법 및 회수는 설문지를 개인 봉투에 밀봉하여 주고받는 등 최대한 개인 신상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고 성실한 답변을 얻을 하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였다. 그리고 미국 대학생을 조사한 설문지는 한국 선교사가 영역한 것을 미국인 학생이 수정한 후 교수의 최종 감수를 받아 영문으로 된 설문지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측정도구

측정도구는 질문지로서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로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연구에 사용되는 측정도구들이 자료분석을 하는데 충분한 수준의 내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각 척도별로 신뢰도 계수를 계산하였다. 질문지에 대한 반응방법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대체로 그렇지 않다 2점, 보통이다 3점, 대체로 그렇다 4점, 매우 그렇다 5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문항내용과 신뢰도 계수는 다음과 같다.

성지식

성지식이란 남녀의 신체적 차이와 그것으로 인한 욕구와 표현의 차이에 대해 아는 것을 포함한 건강한 지식인으로서 알아야 할 성에 대한 광범위한 내용을 말한다(김남정, 2000).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지식 측정도구는 Simon(1995), 문인옥(1997), 조순희(2001), 배정미(2002), 김혜원(2003), 허은주(2004) 등의 연구에서 55

문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전문인 16명(교육학과 교수1명, 가정과 교수1명, 의과대학 교수 1명과 미국 클리브랜드 의과대학 교수 1명, 강사 12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개방과 보수로 문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과 중복된 뜻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제외한 39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성지식의 문항내용은 성기관, 임신과 출산, 성건강 및 성행위에 관련된 것이다. 성지식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87로 신뢰도가 높게 검증되었다.

성태도

성태도란 성과 관련된 제반 현상에 대한 의식 및 사고, 그리고 가치판단과 행동에 관한 반응을 말한다. 여기에는 성의식, 낙태,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자위행위, 피임, 성인용품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성태도의 측정도구는 Hansen(1992), Simon(1995), 문인옥(1998), 조순희(2001), 배정미(2002), 김혜원(2003), 허은주(2004) 등의 연구에서 70문항을 추출하여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전문인 16명(교육학과 교수1명, 가정과 교수1명, 의과대학 교수 1명과 미국 클리브랜드 의과대학 교수 1명, 강사 12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받은 후 개방과 보수로 문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과 중복된 뜻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제외한 63문항을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문항내용은 성의식, 낙태,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자위행위 및 피임에 관련된 것이다. 성태도 신뢰도 계수는 Cronbach α .55로 신뢰도가 양호하게 검증되었다.

성행동

성행동이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성과 관련

된 광범위한 경험을 말한다. 여기에는 손잡음, 키스와 포옹, 애무, 성희롱, 자위행위, 성추행, 성인음란 비디오, 동거, 성충동, 성관계, 성추행, 성폭행, 컴(폰)섹스, 첫경험, 임신, 낙태, 출산, 성병 등을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성행동의 측정도구는 Simon(1995), 문인옥(1998), 윤경자(2002), 김혜원(2003), 허은주(2004) 등의 연구에서 35문항을 추출하여 본 연구에 맞게 수정한 후 전문인 16명(교육학과 교수1명, 가정과 교수1명 의과대학 교수 1명과 미국 클리브랜드 의과대학 교수 1명, 강사 12명)에게 안면 타당도를 검증 받은 후 개방과 보수로 문기에 적절하지 않은 문항들과 중복된 뜻을 갖고 있는 문항들을 제외한 28문항을 3점 척도(예:3점, 아니오:2점, 모른다:1점)로 측정하였다. 각 신뢰도 계수는 성행동 Cronbach α .70, 성충동 Cronbach α .90, 자위행위 Cronbach α .84 등으로 신뢰도가 높게 검증되었다.

자료분석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법으로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성행동 실태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t검증과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 성교육 실태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을 살펴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성기관($t=5.27, p<.001$)과 임신 및 출산($t=6.87, p<.001$), 성건강($t=3.31, p<.01$)에 대한 지식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행위에 대한 지식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전체적으로 성지식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

표 1.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구 분	한 국 (n=210)		미 국 (n=188)		전 체 (n=398)		t
	M	SD	M	SD	M	SD	
성기관	5.68	1.73	4.59	2.32	5.16	2.10	5.27***
임신 및 출산	4.97	2.05	3.53	2.12	4.29	2.20	6.87***
성건강	8.55	3.77	7.38	3.28	8.00	3.59	3.31**
성행위	3.81	1.86	3.66	2.13	3.74	1.99	0.72
성지식	23.00	7.32	19.16	7.29	21.19	7.55	5.23***

** p<.01, *** p<.001

표 2. 한, 미 대학생들의 성태도

구 분	한 국 (n=210)		미 국 (n=188)		전 체 (n=398)		t
	M	SD	M	SD	M	SD	
성의식	3.70	0.31	3.64	0.30	3.67	0.31	2.12*
낙태 금지	3.65	0.71	3.70	0.82	3.67	0.76	-0.63
결혼과 출산	3.74	0.57	3.18	0.47	3.47	0.60	10.66***
순결	3.39	0.85	3.12	0.94	3.26	0.90	3.02**
동성애	1.99	0.77	2.51	0.95	2.24	0.90	-5.96***
성매매 금지	3.47	0.71	3.56	0.70	3.51	0.70	-1.25
자위행위	3.54	0.93	3.58	0.99	3.56	0.95	-0.36
피임	3.38	0.45	3.42	0.56	3.40	0.50	-0.82
성태도	3.36	0.24	3.34	0.20	3.45	0.22	0.92

* p<.05, ** p<.01, *** p<.001

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23, p<.001$).

이상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지식을 살펴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성지식이 높음을 알 수 있다.

한, 미 대학생들의 성태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살펴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성의식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12, p<.05$). 낙태 금지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결혼과 출산($t=10.66, p<.001$), 순결의식($t=3.02, p<.01$)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며, 통계적

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96, p<.001$). 성매매 금지와 자위행위, 피임에 대해서는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보다 높은 인식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성태도는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높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이상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태도를 살펴본 결과,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성의식과 결혼과 출산, 순결의식이 높았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한국 대학생들보다 동성애에 대해 높은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미 대학생들의 성행동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이성친구의 손을 잡아 본 경험은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

표 3. 한, 미 대학생들의 성행동

구 분	한 국 (n=210)		미 국 (n=188)		전 체 (n=398)		t
	M	SD	M	SD	M	SD	
이성친구의 손을 잡아 본적이 있다	2.93	0.25	2.94	0.25	2.93	0.25	-0.11
이성친구와 키스나 포옹을 한 적이 있다	2.79	0.41	2.90	0.30	2.84	0.36	-3.21**
이성친구와 애무 해본 적이 있다	2.56	0.50	2.78	0.43	2.66	0.48	-4.85***
성관계를 가진 경험이 있다	2.30	0.46	2.51	0.52	2.40	0.50	-4.14***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임신시킨) 경험이 있다	2.03	0.17	2.05	0.21	2.04	0.19	-1.00
성관계를 가진 후 낙태(낙태시킨) 경험이 있다	2.03	0.17	2.03	0.17	2.03	0.17	-0.19
성관계를 가진 후 출산(출산시킨) 경험이 있다	2.00	0.00	2.03	0.16	2.01	0.11	-2.26*
성병에 걸린 경험이 있다	2.00	0.07	2.05	0.23	2.03	0.16	-2.83**
성폭행(강간)을 해 본 적(당한 적)이 있다	2.03	0.18	2.05	0.23	2.04	0.20	-0.98
어린 시절 성추행을 한 적(당한 적)이 있다	2.18	0.38	2.11	0.32	2.15	0.35	1.84
술 취하지 않았다면 하지 않았을 성행위를 술에 취했기 때문에 한 적이 있다	2.12	0.34	2.23	0.44	2.18	0.39	-2.77**
사람들이 성행위를 하지 않으면 무시하기 때문에 성행위를 한 적이 있다	2.06	0.24	2.11	0.32	2.09	0.28	-1.75
성인용 음란 비디오나 책을 본적이 있다	2.93	0.26	2.65	0.49	2.80	0.41	7.01***
컴(폰) 행위를 했다	2.09	0.31	2.31	0.49	2.19	0.42	-5.37***
성행동	2.29	0.13	2.34	0.17	2.31	0.15	-3.35**

* p<.05, ** p<.01, *** p<.001

지 않았다. 이성친구와 키스나 포옹을 한 경험($t=-3.21$, $p<.01$)과 이성친구와 애무 해본 경험($t=-4.85$, $p<.001$), 성관계 경험($t=-4.14$, $p<.001$)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관계를 가진 후 임신(임신시킨) 경험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이는 아니었다. 성관계를 가진 후 낙태(낙태시킨) 경험은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이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관계를 가진 후 출산(출산시킨) 경험($t=-2.26$, $p<.05$)과 성병에 걸린 경험($t=-2.83$, $p<.01$)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폭행(강간)을 해본(당한) 경험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어린 시절 성추행을 한(당한) 경험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나 유의미한 차

이는 아니었다. 술에 취해 성행위를 한 경험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2.77, p<.01$).

사람들의 무시로 인한 성행위를 한 경험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인용 음란 비디오나 책을 본 경험은 한국 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7.01, p<.01$). 컴(폰) 행위를 한 경험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았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5.37, p<.001$). 전체적으로 성행동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보다 많이 하였으며,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t=-3.35, p<.01$).

이상에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행동을 살펴본 결과,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보다 이성 친구와 키스나 포옹을 한 경험과 이성친구와 애무를 해본 경험, 성관계 경험, 성관계 후 출산 경험, 성병에 걸린 경험, 술 취해서 성행위를 한 경험, 컴 행위 경험이 많았으며, 한국 대학생들은 미국 대학생들보다 성인용 음란 비디오나 책을 본적이 많음을 알 수 있다.

한·미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r=.223, p<.01$), 결혼과 출산($r=.179, p<.01$), 성충동($r=.143, p<.05$), 피임($r=.147, p<.05$), 그리고 성태도($r=.15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낙태금지, 순결의식, 동성애, 성매매 금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r=.203, p<.01$), 동성애($r=.238, p<.01$), 성충동($r=.269, p<.001$), 피임($r=.294, p<.001$), 그리고 성태도($r=.261,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순결의식($r=-.192,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낙태금지, 결혼과 출산, 성매매 금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의식과 결혼과 출산,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표 4.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구 분	성의식	낙태 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성태도 (전체)
한국	성기관에 대한 지식 0.223** (0.001)	-0.095 (0.170)	0.179** (0.009)	-0.047 (0.502)	0.038 (0.587)	0.013 (0.850)	0.143* (0.038)	0.147* (0.033)	0.159* (0.021)
미국	성기관에 대한 지식 0.203** (0.005)	-0.096 (0.191)	-0.049 (0.503)	-0.192** (0.008)	0.238** (0.001)	-0.027 (0.713)	0.269*** (0.000)	0.294*** (0.000)	0.261*** (0.000)

* $p<.05$, ** $p<.01$, *** $p<.001$

미국 대학생들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의식과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이었고, 순결의식이 낮음을 알 수 있다.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건강에 대한 지식이 성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는 <표 5>와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 낙태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의식,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그리고 성태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피임($r=.151,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 낙태금지, 결혼과 출

산, 성매매 금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순결의식($r=-.254,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동성애($r=.151, p<.05$), 성충동($r=.366, p<.001$), 피임($r=.264, p<.001$), 그리고 성태도 전체($r=.257,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성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순결의식이 낮았고, 동성애와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표 5.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구 분	성의식	낙태 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성태도 (전체)	
한국	성건강에 대한 지식 (0.163)	0.097 (0.248)	-0.080 (0.258)	0.078 (0.193)	-0.090 (0.301)	0.072 (0.782)	0.019 (0.264)	0.077 (0.029)	0.151* (0.256)	0.079
미국	성건강에 대한 지식 (0.188)	0.192 (0.083)	-0.127 (0.508)	-0.049 (0.000)	-0.254*** (0.038)	0.151* (0.212)	0.091 (0.000)	0.366*** (0.000)	0.264*** (0.000)	0.257*** (0.000)

* $p<.05$, *** $p<.001$

표 6.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구 분	성의식	낙태 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성태도 (전체)	
한국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 (0.209)	0.087 (0.087)	-0.118 (0.537)	0.043 (0.745)	-0.023 (0.235)	0.082 (0.491)	0.048 (0.018)	0.163* (0.196)	0.090 (0.070)	0.125
미국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 (0.808)	0.018 (0.370)	0.066 (0.254)	0.084 (0.817)	0.017 (0.572)	0.041 (0.819)	-0.017 (0.570)	-0.042 (0.340)	0.070 (0.230)	0.088

* $p<.05$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6>과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 낙태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의식, 동성애, 성매매 금지, 피임, 그리고 성태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성충동($r=.163,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의식, 낙태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의식,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충동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태도와 관계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행위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 결혼과 출산, 성매매 금지, 그리고 성태도 전체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낙태금지($r=-.192, p<.01$), 순결의식

($r=-.178, p<.05$)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성애($r=.154, p<.05$), 성충동($r=.273, p<.001$), 피임($r=.208, p<.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행위에 대한 지식은 성의식, 결혼과 출산, 성매매 금지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낙태금지($r=-.263, p<.001$), 순결의식($r=-.334,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동성애($r=.260, p<.001$), 성충동($r=.403, p<.001$), 피임($r=.420, p<.001$), 그리고 성태도($r=.153,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낙태 금지와 순결의식이 낮았으나 동성애와 성충동, 피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낙태 금지와 순결의식이 낮았으나 동성애와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임을 알 수 있다.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8>과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표 7.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구분	성의식	낙태 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성태도 (전체)
한국 성행위에 대한 지식	0.103 (0.138)	-0.192** (0.005)	0.051 (0.465)	-0.178* (0.010)	0.154* (0.026)	-0.064 (0.355)	0.273*** (0.000)	0.208** (0.003)	0.101 (0.145)
미국 성행위에 대한 지식	0.130 (0.076)	-0.263*** (0.000)	-0.132 (0.071)	-0.334*** (0.000)	0.260*** (0.000)	-0.120 (0.100)	0.403*** (0.000)	0.420*** (0.000)	0.153* (0.037)

* $p<.05$, ** $p<.01$, *** $p<.001$

표 8. 성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

구 분	성의식	낙태 금지	결혼과 출산	순결	동성애	성매매 금지	성충동	피임	성태도 (전체)
한국 성지식	0.153* (0.027)	-0.145* (0.035)	0.107 (0.121)	-0.109 (0.115)	0.108 (0.119)	0.010 (0.885)	0.188** (0.006)	0.190** (0.006)	0.139* (0.045)
미국 성지식	0.194** (0.008)	-0.145* (0.047)	-0.052 (0.479)	-0.268*** (0.000)	0.232** (0.001)	-0.008 (0.918)	0.356*** (0.000)	0.356*** (0.000)	0.269*** (0.000)

* p<.05, ** p<.01, *** p<.001

성지식은 성의식(r=.153, p<.05), 성충동(r=.188, p<.01), 피임(r=.190, p<.01), 그리고 성태도 전체(r=.139, p<.05)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낙태금지(r=-.145, p<.05)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결혼과 출산, 순결의식, 동성애, 성매매 금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지식은 성의식(r=.194, p<.01), 동성애(r=.232, p<.01), 성충동(r=.356, p<.001), 피임(r=.356, p<.001), 그리고 성태도 전체(r=.269,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낙태금지(r=-.145, p<.05), 순결의식(r=-.268, p<.001)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결혼과 출산, 성매매 금지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의식과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낙태금지에 대한 태도는 부정적이었고, 미국 대학생들은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의식과 동성애, 성충동, 피임, 그리고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나 낙태금지와 순결의식은 낮음을 알 수 있다.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9>와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과 자위행위, 성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

표 9.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구 분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
한국 성기관에 대한 지식	-0.048 (0.493)	-0.085 (0.219)	-0.071 (0.306)
미국 성기관에 대한 지식	0.114 (0.118)	0.299*** (0.000)	-0.067 (0.363)

*** p<.001

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 성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으나 자위행위($r=.299, p<.001$)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위행위를 많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임신 및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모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과 자위행위, 성충동과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 모두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1>과 같다.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과 자위행위, 성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r=.155, p<.05$), 자위행위($r=.283,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성충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에

표 10.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구 분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
한국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	0.099 (0.152)	-0.118 (0.089)	0.064 (0.353)
미국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	-0.058 (0.429)	0.113 (0.124)	-0.106 (0.148)

표 11.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구 분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
한국	성건강에 대한 지식	0.125 (0.070)	0.034 (0.089)	0.089 (0.198)
미국	성건강에 대한 지식	0.155* (0.034)	0.283*** (0.000)	-0.009 (0.905)

* $p<.05$, *** $p<.001$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성 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자위 행위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2>와 같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행위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r=.202, p<.01$), 성충동($r=.162,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자위행위와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행위에 대한 지식은 성행동($r=.322, p<.001$), 자위행위($r=.410,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충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성충동이 높았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자위행위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성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한국 대학생들과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 성지식과 성행동관계를 살펴본 결과는 <표 13>과 같다. 먼저 한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지식은 성행동과 자위행위, 성충동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다음으로 미국 대학생들에 있어서는 성지식은 성행동($r=.183, p<.05$), 자위행위($r=.375, p<.001$)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성충동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과 같이 한국 대학생들은 성지식은 성

표 12.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구 분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
한국	성행위에 대한 지식	0.202** (0.003)	0.024 (0.734)	0.162* (0.019)
미국	성행위에 대한 지식	0.322*** (0.000)	0.410*** (0.000)	0.083 (0.257)

* $p<.05$, ** $p<.01$, *** $p<.001$

표 13. 성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

구 분		성행동	자위행위	성충동
한국	성지식	0.132 (0.056)	-0.030 (0.670)	0.088 (0.202)
미국	성지식	0.183* (0.012)	0.375*** (0.000)	-0.032 (0.667)

* $p<.05$, *** $p<.001$

행동, 자위행위, 성충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성행동과 자위행위를 많이 함을 알 수 있다.

요약 및 논의

본 연구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성지식의 수준은 한국대학생들이 미국 대학생들 보다 유의미하게 높았고, 성태도도 한국 대학생들이 더 높았으나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성행동은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 보다 유의미하게 더 높았다.

둘째, 성기관에 대한 지식은 한국대학생들과 미국대학생들 모두 성태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태도 하위변인 중 성의식, 성충동 및 피임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한, 미간의 차이는 한국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미국은 동성애에는 정적 상관관계를, 순결의식에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한, 미 대학생들 모두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에 긍정적이고, 성의식과, 성충동이 높으며 피임을 많이 하고, 한국 대학생들은 결혼과 출산에 대해 긍정적이고, 미국 대학생들은 동성애를 많이 하며, 순결의식은 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성건강에 대한 지식은 미국 대학생들만 성태도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보였고, 성태도 하위변인 중 한국 대학생들은 피임과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동성애, 성충동, 피임과는 정적 상관관계를, 순결의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런 결과에서 성건강에 관한 지식이 높을수록 한

국 대학생들은 피임을 많이 하고, 미국 대학생들은 피임과 동성애를 많이 하며 성충동이 높고, 순결의식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박선영(2002)의 혼전순결에 대한 연구에서 대학생들 전체 응답자의 60%가 '지키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고하고 있고, 김혁곤(1996)의 연구에서 '혼전 순결은 꼭 지켜야 한다'는 응답이 1984년에 53.1%에서 1996년에 44.4%로 감소하였으며,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 '남성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 50.7%, '여성의 혼전 성경험'에 대해 44.6%가 찬성한 결과를 볼 때, 미국의 청소년들의 성행동의 추세에서 남자는 1988년 76%에서 1995년에는 68%로 감소하였고, 여자는 1988년 51 %에서 1995년 49%로 조금 감소하고 있는 결과를 비교해 볼 때 한국은 순결의식이 점점 낮아지고 있고, 미국은 순결의식이 점점 높아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미국 대학생들이 한국 대학생들 보다 동성애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나, 한국 청소년들은 전체적으로 6.9%가 동성애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4.6%)보다 여학생(9.1%)이 높게 나타났으며(김정호, 2000), 미국에서는 십대들 중 남자(11%)가 여자(6%)보다 동성애 경험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Hyde, 1990)는 연구결과에 비추어볼 때, 동성애 경험에 대해 한국은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높고, 미국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낮게 나타난 결과는 한, 미간의 성문화 차이와 동성애 개념에 대한 견해차이로 판단된다.

넷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한국 대학생들은 성충동과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미국 대학생들은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성태도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대학생들은 성충동이 높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태도와의 관계에서 미국 대학생들만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고, 한, 미 대학생들 모두 성태도 하위변인 중 동성애, 성충동 및 피임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낙태금지와 순결의식과는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성행위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한, 미 대학생들 모두 동성애와 피임을 많이 하고, 성충동이 높으며, 낙태에 대해 허용적이고, 순결의식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성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은 한, 미의 대학생들의 성충동 및 성행동에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고, 특히 순결의식이 낮고 낙태에 대해 허용적인 것에 대한 시사점이 있다. Whitbeck 등(1999)은 성별에 관계없이 성행동은 성에 대한 허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어서 청소년들이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를 가진 경우 일찍부터 성관계를 가질 확률이 높아진다고 하였다는 미국의 경우와 한국의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지식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결과, 또한 ‘결혼 전에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경우 유산을 해도 된다.’라는 문항에 43.4%가 낙태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연구결과를 볼 때 성행동은 성에 대해 허용적인 태도와 관계가 있고, 성태도가 개방적임을 보여준다.

여섯째,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식은 한, 미 대학생들 모두 성행동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곱째, 성기관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성행동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고, 미국 대학생들

은 자위행위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미국 대학생들은 성기관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성건강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미국 대학생들만 성행동과 자위행위에 대해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미국 대학생들은 성건강에 대한 지식이 높을수록 성행동과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킨제이(Kinsey, 1948)보고서에 따르면 20세까지의 미국 남자의 약 92%와 여자의 약 30% 이상이 자위행위를 경험했다는 결과와 자위행위의 경험은 28%로 남학생(54.8%)이 여학생(3.35%)보다 높았다(배성미, 2002)는 견해와 일치하나 한국의 선행 연구에서 자위행위는 경험이 많은 것으로 밝힌 연구들(이인숙, 1994; 장선화, 1998; 조순희, 2001)이 있는 것을 감안해볼 때, 한국 학생들도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아홉째, 성행위에 대한 지식과 성행동과의 관계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성행동과 성충동에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성행동과 자위행위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따라서 성행위에 대한 지식수준이 높을수록 한국 대학생들은 성행동을 많이 하고 성충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대학생들은 성행동과 자위행위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지식, 성태도와 성행동간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본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살펴보면, 본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은 성지식과 성태도는 정적 상관관계이고 성지식과 성행동과는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미국 대학생들은 성지식과 성태도 및 성행동이 유의미하게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이는 배성미(2002)의 연구에서 성지식은

성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나 성지식은 성태도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견해와 비슷하고,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며,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행동의 경험은 낮다(최희정, 1985)는 결과와 일치하나, 전경숙 등(2004)의 연구에서 성지식과 성태도와 의 관계는 낮은 상관관계로 밝혀진 결과와도 비교해볼 수 있다. 대체로 성태도는 성행동에 영향을 준다. 즉, 선행연구들에서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교 경험률이 높았다는 연구들이 있다(이인숙, 1994; 장휘숙, 1995; 정민자 외, 1995)는 연구와도 비슷한 견해이다.

이상을 종합적으로 볼 때 성지식이 높을수록 성태도에 대해 긍정적이고, 성태도가 긍정적일 때 성행동의 경험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올바른 성교육을 통해서 올바르게 정확한 성지식을 갖게 하여 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 가치관, 태도 등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주로 인터넷이나 음란물 등을 통하여 성지식을 습득하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성지식 습득을 할 수 있는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므로 가정이나 학교에서 체계적이고 올바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점점 우리나라 대학생들도 미국이나 성개방이 된 유럽처럼 점차 성태도가 개방적으로 증가되고 있고, 그로 인한 임신과 낙태 문제 또한 심각하다. 따라서 대학교에서도 체계적인 성교육 프로그램으로 학생들에게 성교육을 제공한다면 올바른 성지식 습득으로 건전한 성태도가 형성되리라 기대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비교분석이 이루어졌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한국의 대학생들은

수도권 학생들과 도청소재지에 소재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로 제한하여 일반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심층 면접이 아니고 설문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가 담긴 설문 문항에 대한 진솔한 응답을 하는데 한계점을 갖는다. 셋째, 한국과 미국의 문화가 다르고 성에 대한 가치관이나 규범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내용의 설문을 했어도 응답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넷째, 한국과 미국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비교 연구가 없기 때문에 논의점이 미흡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 한, 미 대학생들의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에 대한 비교 연구뿐만 아니라 성교육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대학생들의 성태도와 성행동 양상에 맞는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이루어지길 바란다.

참고문헌

- 강훈백 (2001).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행동 및 태도에 관한 실태분석. 목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연숙 (2001). 남녀 대학생의 성태도와 성행동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신 (2001). 대학생의 성의식 실태분석을 통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81-201.
- 김남정 (2000). 컴퓨터 성교육 프로그램이 고등학생의 성지식과 태도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1992). 청소년의 성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 이인숙, 전미양, 정미숙 (2000). 일부 전문대학생들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4(2), 382-395.
- 김태균 (1998). 컴퓨터음란물이 청소년 학습과 성반응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원 (2003). 남녀청소년들의 성지식, 성태도, 성행동의 현황 및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 상담 및 심리치료, 15(2), 309-328.
- 남명희 (1999). 일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및 성경험에 관한 조사 연구.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0(1), 239-251.
- 문인옥 (1997). 일부대학생의 성의식 및 성행동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학회지, 14(2), 95-112.
- 문인옥 (1998). 대학생의 성태도 및 성행동에 미치는 요인분석. 한국보건통계학회지, 23(1), 149-163.
- 박미숙 (2002). 고등학생과 대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 요구도 비교 분석. 인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선영 (2002). 대학생들의 성의식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정 (1996). 청소년의 성(이성교제, 성행동, 혼전 성허용성, 성지식, 성역할 특성, 성교육)에 관한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신 (1998). 일부 사범대학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와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중앙의학, 53(6).
- 배성미 (2002). 청소년의 성지식 성태도가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성영자 (1984). 남녀 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과 상관변인에 관한 분석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손호은 (1991). 국내 성교육용 영상 교재에 관한 연구. 효성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심희정 (1999). 청소년의 성의식과 태도에 관한 조사연구. 동아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우윤미 (1998). 청소년의 성문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위현미 (1998). 청소년의 성의식상의 문제와 대처 방안. 대구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희, 송미숙 (1997). 대학생의 성지식과 성교육 요구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일개 대학을 중심으로. 대한간호학회지, 27(1), 26-35.
- 이은정 (1997). 청소년의 성지식과 행동에 관한 연구: 실업계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영 (1997). 성교육 프로그램이 비행 청소년의 성지식과 성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인숙 (1994). 일부대학생들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경험 및 성교육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선화 (1997). 음란물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장휘숙 (1996). 청년 심리학. 서울: 장승
- 전경숙, 이효영, 이선자 (2004). 대학생의 성지식, 태도, 행동실태 및 성교육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1(1), 45-68.
- 조순희 (2001). 남자 고등학생의 성에 대한 지식, 태도, 성경험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

- 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용현 (1994). 고등학생의 성의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차선희 (1999). 남녀 대학생의 성문화와 성의식 연구. 대구. 효성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허은주 (2004). 대학생의 심리·사회적 성숙 변인과 성태도 및 성지식과의 관계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engtson, V. L. et al., (1977). Stratum Contrasts and Similarities in Attitudes toward Death, *Journal of Gerontology*, vol. 16, p. 79.
- Brues, C. E. & Greenberg, J. S. (1988). sexuality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New York: McMillian. Publishing Company*, p.5.
- DeLamater J. & MacCorquodale, P. (1979). Premarital sexuality: Attitudes, relationships, behavior. *Madison, WI: Univ. of Wisconsin Press*.
- Department of Health Services (2001).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teenagers in the U.S. *Vital and Health Statistics*, 23(21).
- Dunaway & Carolyn, B. (1983). sexual knowledge and attitudes among selected university students, <http://wwwlib.umi.com/dissertations/fullcit/8317565>.
- Greenberg, B. (1988). Sexuality Education-theory and practice. *NY:Macmillan Publishing Company*.
- Gunerson, M. P. & McCary, J. L. (1989). Effect of sex education on sex information & sex guilt, attituded, and behaviors. *Family Relations*, 32, 123-128.
- Hendrick, C. & Hendrick, S. (1987). Love and sexual attitudes, self-disclosure, and sensation seeking.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 Relationship*, 4, 281-297.
- Hudson W. W., Murphy, G. J. & Nurius, P. S. (1992). The WALMYR Assessment Scale Scoring Manual. Tempe, AZ: WALMYR Publishing Co.
- Marsman, J. C. & Herold, E. S. (1986). Attitudes toward sex education & values in sex education. *Family Reations*, 35, 357-361.
- Sexual Activity and Contraceptive Practices Among Teenagers in the United States. 1988 and 1995 (2001).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imon, W., Berger, A. S. & Gagnon, J. H. (1972). Beyond Anxiety and Fantasy: The Coital Experience of College Youth.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3): 203-222.
- Singh, B. K. (1980). Trends and Attitudes toward Premanital Sexual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2(2), 387-393.
- Spencer R. J. & Rathus, L. F. (1993). Human Sexuality in a World of Diversity. *New York: Allyn and Bacon*.
- Tom S. (1988;). American Sexual Behavior (University of Chicago: National Opinion Research Center, GSS T Topical Report No. 25, updated December, version 3.0).
- Youn, G. (1996). Sexual activities and attitudes of Korean adolescents. *Archives Sexual behavior*, 25, 625-639.
- Whitbeck, L. B., Yoder, K. A., Hoyt, D. R. & Conger, R. D. (1999). Early adolescent sexual activity: Adevelopmental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4), 934-947.

A Study on the of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s and Sexual Behavior in Korean and American College Students

Nam-Sik Woo

Young-Hee Ka

Department of Education, Inha University

The result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Students in Korea have a higher level in knowledge and attitude about sex than students in U.S. while they are lower in sexual behavior. In the light of the knowledge of sex organs, both Korean and American students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sexual consciousness, sexual urges and contraception. About the sexual health, Korean students show that they have a positive correlation with contraception. American students show a positive correlation with homosexuality, sexual urges and contraception, but they show a negative correlation with virginity. In the 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Korean students are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 but they don't show any meaningful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and sexual behavior. On the other hand, American students show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As a result, The higher the level of sexual knowledge is, the more homosexuality and masturbation are and the lower the virginity is.

key words : *sexual knowledge, sexual attitude, sexual impulse, sexual health*

1차 원고접수: 2005. 2. 21.

심사통과접수: 2005. 5. 9.

최종원고접수: 2005. 6. 12.